

[1~2] 다음은 읽기 과제를 수행하는 두 학생의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4.예비시행A 29~30

예지 : 『신비한 뇌』, 『화학의 힘』, 『떠나자, 여행』. 이 중 한 권을 후배들에게 소개하는 과제인데, 어떻게 할까? 처음 접하는 책들이니까 일단 훑어보자. (세 권의 목차와 내용을 살펴본 후) 뇌나 화학에 대한 책은 후배들이 읽기 힘든 수준이니, 여행에 대한 책으로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읽을까? 책을 소개해야 하니깐 다루고 있는 여행지와 제공하는 정보에 주목해야겠고, 책을 소개하는 이유도 메모하면서 읽어야겠다. (잠시 책을 읽은 후) 모든 여행지가 같은 양식으로 소개되고 있네. 여행지가 100곳인데 정보량도 많아. 시간 문제나 과제의 성격을 생각해도 이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겠다. 지금부터는 후배들이 관심을 가질 여행지를 선별해서 읽어야겠다. (한동안 책을 읽은 후) 이제 잘 진행되니, 책 소개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다.

승수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세 권 중 하나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과제였지. 보자. 첫 번째 책 제목이 『위험한 사회』. 재밌어 보이네. 이 책으로 결정. (첫 장을 읽으며) '전자 판옵티콘'이 여러 번 나오네. 무슨 말이지? 이외에도 모르는 단어가 많군. 선생님께서 모르는 단어는 글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더 읽어 보자. (잠시 책을 읽은 후) "판옵티콘의 통제는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판옵티콘'이 또 나왔네. 뜻은 아직 모르겠고. '비대칭적 시선'은 뭘까? '체화'도 모르겠고, 갑자기 건축 이야기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니 문제네. 왜 이렇게 안 읽히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 어떻게 해야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문제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다.

2. ㉠에 대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추론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면 어휘나 배경 지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 ② 읽기는 저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활동이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비판해 볼 필요가 있어.
- ③ 책에 제시된 세부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면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 ④ 책의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예측해 보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 ⑤ 읽은 내용을 내면화하면 의미를 정교화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1. '예지'와 '승수'의 독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지'는 후배들의 읽기 수준과 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택하였다.
- ② '승수'는 책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 ③ '예지'와 '승수'는 모두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 ④ '예지'는 '승수'와 달리 책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의 읽기 방법을 조정하였다.
- ⑤ '예지'는 '승수'와 달리 책을 읽기 전에 과제를 분석하고 읽기 계획을 세웠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예비시행B 29~30

독서를 할 때에는 결코 의문만 일으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마음을 평온하게 갖고 뜻을 오롯이 하여 글을 읽어 가도록 한다. 그리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의문이 생기거든 되풀이하여 궁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글에만 의거하지 말고 혹 일을 했던 경험으로 깨닫기도 하고 혹 노니는 중에 구하기도 하는 등, 무릇 다닐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수시로 궁구할 일이다.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통하지 못할 것이 별로 없다. 또 설사 통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스스로 먼저 궁구한 후에 남에게 묻는다면 말을 듣자마자 깨달을 수 있다.

독서를 할 때 목소리만 높여 혀세를 부리거나, 어지럽게 글을 읽고, 억지로 자구를 뽑아내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의문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 대답하는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나치고 돌아보지 않으며, 한 번 묻고 한 번 대답하는 것으로 다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익을 구하는 데에 뜻이 없는 자이니 더불어 학문을 할 수 없다. (중략)

나는 일찍이 “내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본다.[以意逆志]”라고 한 맹자의 말을 글 읽는 비결로 삼았다. 옛사람의 글에는 올바른 도리나 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편을 짓는 방법이나 기승전결과 같이 글을 구성하는 방법 등 사소한 것까지도 말해 두었다. 이제 내 생각으로 옛사람의 뜻을 헤아려, 서로 하나로 합해져 간격이 없고 주객이 합치되면 이는 옛사람의 정신과 식견이 내 마음에 사무쳐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비유컨대 굿을 할 때 신이 내리면 무당은 자기가 모르던 것을 환하게 알게 되지만 그것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이처럼 옛사람의 문장에 기대거나 옛사람의 목은 자취를 좇지 않고 변화시켜 근본을 쫓다면, 나 역시 옛사람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읽은 뒤에야 비로소 오묘한 이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홍대용, 「매헌(梅軒)에게 씀」 -

3. 위 글의 필자인 'A'와(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서를 한다. 취업이나 시험, 면접 등을 준비할 때에 그와 관련된 책을 선택하여 읽는다. 또 새로 구입한 전자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제품을 작동하기도 한다. 이로 보아 독서는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① A는 B에 비해 목적에 따른 선택적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
- ② A는 B에 비해 세부 정보 파악에 치중하는 독서를 역설하고 있군.
- ③ B는 A에 비해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독서를 선호하고 있군.
- ④ B는 A에 비해 사물의 원리를 깨우치기 위한 독서를 중시하고 있군.
- ⑤ B는 A에 비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를 강조하고 있군.

4.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면 끊임없이 생각하여 답을 얻도록 해야 한다.
- ② 개괄적인 내용 파악을 통한 예측하거나 질문 만들기를 하면서 읽어야 한다.
- ③ 정신을 가다듬고 정밀하게 볼 수 있도록 집중하여야 한다.
- ④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주장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한다.
- ⑤ 글의 형식적 측면까지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5. 다음 자료에 나타난 학생의 독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06A 30

방학 숙제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 중에서 하나를 골라 독후감을 써야 하는데 어떤 책을 읽을까? 나는 역사를 좋아하니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야겠어.

우선 목차를 읽어 봐야겠어. (목차를 읽는다.) 이 책은 ‘역사사와 그의 사실’이라는 장으로 시작되네. 아마 역사가가 사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 썼을 것 같아. 조금 어렵겠지만 재미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읽어 봐야지. (책을 읽다가 멈춘다.) ‘역사적사실’. (밑줄을 긋는다.) ‘역사적사실’이란 역사가의 해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구나. 그래, 이걸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내용은 적으면서 읽어야겠어. 그러면 나중에 메모를 보고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겠지? (메모하면서 책을 계속 읽는다.)

(읽기를 잠시 멈추고 메모한 내용을 훑어본다.) 음,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간략히 하면, 역사책을 읽을 때는 일어났던 일보다 그 일을 기록한 역사가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로군.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걸까? 중요한 사건은 어느 역사가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 ① 목차를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하였다.
- ② 글쓴이의 견해에 반응하면서 비판적으로 읽고 있다.
- ③ 중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메모하며 읽고 있다.
- ④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확인하였다.
- ⑤ 책을 읽는 목적과 자신의 흥미를 고려하여 책을 선택하였다.

6.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독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06B 30

(가)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인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히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황, 「독서」-

(나) 「사기」의 「자객열전」을 읽다가 “조(祖)를 마치고 길에 올랐다.”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고 하자. “조(祖)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스승께서는 “떠나보낼 때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다.”라고 하실 것이다. 다시 “하필 그것을 ‘할아버지 조(祖)’로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요?”하면,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사전(字典)\*을 꺼내 ‘조(祖)’의 본뜻을 알아보아라. 그리고 자전을 바탕으로 다른 책으로 나아가 그 책의 주석과 풀이를 살피면서 그 뿌리의 끝을 캐고 가지와 잎까지 줍도록 하여라.

-정약용, 「둘째 아들에게 부침」-

\* 사전 : 한자를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늘어놓고 글자 하나하나의 음과 뜻을 풀이한 책.

- ① 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자세로 읽는다.
- ②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소견으로 성현의 말쑤를 헤아리며 읽는다.
- ③ 책을 읽다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읽는다.
- ④ 책을 읽다가 낯선 단어가 나오면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⑤ 책을 읽다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비판의 근거로 삼을 만한 책을 찾아 읽는다.

7. 다음 글을 읽기 전에 정리한 ‘알고 싶은 점’ 중,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14.09B 30

12세기 이전까지 유럽에서의 독서는 신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로 성경이나 주석서를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2세기 들어 그리스 고전이 이슬람 세계로부터 대거 유입되고 학문적 저술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독서 문화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독서는 폭넓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저서를 두루 구해 읽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책의 중요한 내용을 뽑아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집, 백과사전과 같은 다양한 참고 도서의 발행이 시행하였다. 이러한 책들은 텍스트가 장, 절로 나누어져 있고 중요한 구절 표시가 있는가 하면, 차례나 찾아보기 같은 보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등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편집되었다. 이를 활용하여 독자들은 다양한 정보와 해석을 편리하고 빠르게 찾고, 이렇게 얻은 지식들을 논증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참고 도서를 위주로 한 독서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원전 독서를 등한시하여 원전이 담고 있는 풍부함을 맛볼 수 없게 되었다.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이점은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었다.

【 알고 싶은 점 】

- 이 시기에는 어떤 책들이 유행을 했을까? ..... ①
- 이 시기의 독서법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 ②
- 이 시기에 독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 ③
- 이 시기의 독서법은 이전 시기와 어떻게 다를까? ..... ④
- 이 시기 책의 저자와 독자는 어떤 계층이었을까? ..... ⑤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11B 17~18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의 사서(四書)는 배움을 위한 첫 단계에서 읽어야 할 책이다. 그 뒤를 이어 읽을 책은 『격몽요결』, 『소학』, 『근사록』, 『성학집요』로 그 체제와 내용이 정밀하여 얇은 데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니 내가 일찍이 이를 후사서(後四書)라고 불렀다. 이를 반복하여 읽어 모두 이해하고 환히 알게 되면 자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니 매양 동료들에게 배움의 규범으로 삼기를 권하였다.

사서 육경(四書六經)과 송나라 시대의 성리학 책은 사람이 평생토록 익히기를, 마치 농부가 오곡을 심고 가꾸듯 해야 한다. 하나의 경서를 읽고 익힐 때마다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철저하게 해야 한다. 첫째, 경서의 글을 익숙하도록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 둘째,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참고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분별하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 셋째, 정밀히 생각하여 의심나는 것을 풀어 가며 읽되 감히 자신해서는 안 된다. 넷째, 명확하게 분별하여 그릇된 것을 버리면서 읽되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경서에서 그 문을 찾아 방으로 들어간다면, 방을 같이 하면서도 들어가는 문이 다른 여러 책들을 유추하여 통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학업을 이룬 세상에 이름난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이 했다. 이상은 용촌(榕村) 이광지(季光地)의 독서법이니 배우는 사람이 본받을 만하다.

- 이덕무, 「사소절(士小節)」 -

8. 윗글을 읽고 자신의 독서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서 수준과 단계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권장 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책을 읽어야겠어.
- ② 책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의문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며 책을 읽어야겠어.
- ③ 책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겠어.
- ④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정독의 방법보다는 다독의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겠어.
- 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겠어.

9. 윗글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독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현대 사회에서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기 위한 독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차례나 서문 등을 살핀 뒤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책을 선정하여 읽는다. 둘째, 필요한 정의 유무를 파악하며 빠르게 훑어 읽는다. 셋째,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책의 내용과 관련한 여러 관점들을 비교·대조해 가며 책을 읽는다.

- ① 책의 내용을 요약해 가면서 읽는다.
- ②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차악해 가면서 책을 읽는다.
- ③ 많은 양의 책을 읽기 위해 전체 내용을 빠르게 훑어 읽는다.
- ④ 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함께 견주어 가며 책을 읽는다.
- ⑤ 차례나 서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한 책을 골라 읽는다.

• 빠른 정답 •

문항 번호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	③	-	-	-	-	-
2	①	-	-	-	-	-
3	⑤	-	-	-	-	-
4	②	-	-	-	-	-
5	④	2%	6%	1%	87%	2%
6	③	3%	4%	88%	3%	0%
7	⑤	1%	0%	1%	0%	95%
8	④	4%	4%	3%	87%	0%
9	④	1%	5%	2%	86%	3%

• EBS 공식 해설 •

[예비시행은 EBS 공식 해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5) 생활독서, 독서 과정

5. 다음 자료에 나타난 학생의 독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형: 독서 방법의 파악]

- ① 목차를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하였다.  
⇒ 2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글쓴이의 견해에 반응하면서 비판적으로 읽고 있다.  
⇒ 4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중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메모하며 읽고 있다.  
⇒ 3문단의 '메모하면서 책을 계속 읽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확인하였다.  
⇒ 마지막 문단에 '역사가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로군.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네.' 부분을 통해 볼 때, 학생이 글쓴이의 관점을 확인하는 내용은 있지만,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 ⑤ 책을 읽는 목적과 자신의 흥미를 고려하여 책을 선택하였다.  
⇒ 1문단의 '나는 역사책을 좋아하니까 ~'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생활독서, 선인들의 책읽기

6.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독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형: 독서에 대한 가치관 추론]

- ① 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자세로 읽는다.  
⇒ 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이야기는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있지만 읽은 내용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모두 없다.
- ②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소견으로 성현의 말씀을 헤아리며 읽는다.  
⇒ (가)에서는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생각에 맞추지 말고 성인의 생각에 맞추라고 하고 있으므로 (가)의 내용과 맞지 않고, (나)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책을 읽다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읽는다.  
⇒ (가)에서는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내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한 것이므로 더욱 철저히 알려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에서는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히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책을 읽다가 낯선 단어가 나오면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  
⇒ (나)에는 나타나 있지만 (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책을 읽다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비판의 근거로 삼을 만한 책을 찾아 읽는다.  
⇒ (가)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독서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가)의 내용과 맞지 않고, 비판의 근거를 찾으라는 것은 (가), (나) 모두와 맞지 않다.

[7] 12세기 유럽의 독서 문화

[지문 해설]

이 글은 그 이전과 구별되는 12세기 유럽의 독서 문화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12세기 이전의 독서는 종교적 목적에 의해 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12세기에는 폭넓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과 절의 구분, 주요 구절 표시, 차례와 찾아보기 같은 보조 장치 마련 등 새로운 방식으로 편집된 요약 집, 백과사전과 같은 참고 도서의 발행이 성행하였다.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방식은 다양한 정보와 해석을 편리하고 빠르게 찾고 이를 논증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원전 독서를 등한시하게 하여 원전이 담고 있는 풍부함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 [주제] 12세기 유럽의 독서 문화와 그 장단점

7. 다음 글을 읽기 전에 정리한 ‘알고 싶은 점’ 중,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유형: 세부 내용 파악]

【알고 싶은 점】

- 이 시기에는 어떤 책들이 유행을 했을까? ..... ①  
⇒ 2문단 둘째 문장에서 이 시기에는 주로 책의 중요한 내용을 뽑아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집, 백과사전과 같은 다양한 참고 도서가 유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시기의 독서법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 ②  
⇒ 3문단 첫째, 둘째 문장에서 이 시기의 독서법인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읽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이점이 있지만 원전이 담고 있는 풍부함을 맛볼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시기에 독서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였을까? ..... ③  
⇒ 12세기 독서의 주된 목적이 ‘폭넓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에 있었음을 2문단 첫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 시기의 독서법은 이전 시기와 어떻게 다를까? ..... ④  
⇒ 1문단 첫째 문장에서 이전 시기의 독서는 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방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문단의 편집 방식의 변화와 3문단 둘째 문장에서 12세기 독서는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방식’이었음을 추론,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의 독서법은 이전 시기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 이 시기 책의 저자와 독자는 어떤 계층이었을까? ..... ⑤  
⇒ 이 글의 전 부분에서 12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책의 종류, 12세기 독서법의 장단점, 12세기 독서의 목적, 12세기 독서법과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 등은 드러나 있으나 12세기 유럽에서의 저자와 독자는 어떤 계층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8-9] 독서 이론의 적용, 이덕무, ‘사소절(士小節)’

이 글은 선비들의 독서법에 대한 조언을 담은 이덕무의 글로, 바람직한 독서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어떤 수준의 책을 어떤 단계별로 읽어야 하는지부터 시작하여 그런 단계적 독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친절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 책을 읽는 바람직한 방법을 오탁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며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며 독서에 관해 본받을 만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글쓴이는 반복적으로 책을 읽는 것과 여러 의견을 수용하면서 각 의견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읽는 것, 의심이 나는 것을 해결하는 독서법,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글의 끝부분에 ‘용춘 이광지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바람직한 독서법으로 삶을 가꾼 모범적인 사람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곧 독서를 큰 가치로 여겼던 당대 선비들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올바른 독서를 하기 위한 노력은 선비들이 거쳐야 하는 수양의 필수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주제] 본받아야 할 선인의 올바른 독서 방법

8. 윗글을 읽고 자신의 독서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형: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 ① 독서 수준과 단계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권장 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책을 읽어야겠어.  
⇒ 글의 첫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글쓴이는 ‘사서’는 배움의 첫 단계에서 읽고 ‘후사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읽어야,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독서의 형식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 ② 책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의문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며 책을 읽어야겠어.  
⇒ ‘의심나는 것을 풀어 가며 읽’이라는 내용은 의문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며 책을 읽으라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책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겠어.  
⇒ 그릇된 것을 버리면서 읽’이라는 것은 책을 읽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며 읽고, 그 중 그른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 ④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정독의 방법보다는 다독의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겠어.  
⇒ 글쓴이가 제시한 독서법 중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참고 하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정독을 배제하고 다독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글쓴이는 ‘정밀히 생각하여 의심나는 것을 풀어 가며’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것(다독)에 중점을 두기 위해 세밀하게 읽는 것을 보류하는 것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책을 읽어야겠어.
- ⇒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학식에 대해 겸손할 것과 판단에 대해 신중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9. 윗글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독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형: 독서 방법의 파악]

- ① 책의 내용을 요약해 가면서 읽는다.  
⇒ 책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으라는 것은 선인의 독서법이나 <보기>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다.
- ②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해 가면서 책을 읽는다.  
⇒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해 가며 읽는 것은, 현대의 독서법 중에서 책의 서문이나 차례 등을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 ③ 많은 양의 책을 읽기 위해 전체 내용을 빠르게 훑어 읽는다.  
⇒ 많은 양의 책을 읽을 때 훑어 읽기를 하는 것은 현대의 독서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함께 건주어 가며 책을 읽는다.  
⇒ <보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수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뽑아내고 수용하기 위해 어떤 독서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다. 즉, 제목이나 차례, 서문 등을 살핀 후에 책을 결정하는 방법, 필요한 정보의 유무를 파악하며 훑어 읽는 방법, 책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며 읽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선비들의 독서법에 대한 내용과 <보기>에서 제시한 방대한 정보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의 독서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독서 방법은 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건주어 가며 읽으라는 것이다. 이는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서법이기도 하고 포용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독서법이기도 하다.
- ⑤ 차례나 서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한 책을 골라 읽는다.  
⇒ 차례나 서문을 먼저 읽고, 그 중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되는 책을 골라 읽는 것은 정보를 선별해야 할 필요가 많은 현대에서 활용되는 독서법이다.